

공공기관 '사내벤처'로 일자리·기술력 업

한전KDN UPSG 팀 지능형 설비 진단 인공지능 로봇 등 개발 인터넷진흥원 '시큐리티 AI+' 공모전 수상·예비창업패키지 선정도

나주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기관들이 사내 벤처(예비 창업자)를 잇따라 키워내고 있다. 이들 사내 벤처들은 탄탄한 기본실력과 공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 한전KDN 등 총 75개사이다.

중기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 창업을 늘릴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전은 지난해 1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내벤처 2개팀을 발굴·육성했다. 올해는 예산을 58% 늘린 3억원을 들여 사내벤처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관련기업 430개사를 혁신도시에서 유치하며 유치 목표를

100% 달성하기도 했다. 전력그룹사 한전KDN은 공모를 거쳐 지난 연말 '스마트라인' 'UPSG' 등 사내벤처 2개팀을 선정했다. 이들 벤처팀은 2년 동안 한전KDN의 지원을 받으며 사내 사업화와 분사 창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라인 팀은 '배전계통 스마트 지중관리 단말장치 개발 사업'을 통해 선로의 회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 단말장치를 개발한다. UPSG 팀은 지능형 설비진단 무인 이동체 개발 사업을 통해 지중 전력구내 작업자의 고위험 현장업무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한전KDN은 지난 2018년에도 드론을 활용한 장거리 전력설비 점검 기술(사드론테크 팀)과 중강 현상과 GPS 기반 전력설비 관리시스템 구축(케이몬스터 팀) 등을 사내벤처를 통해 이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은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사내벤처 2개 팀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신사업 발굴 및 미래 성장 동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올해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면서 2억5000만원의 지원 예산을 세웠다. 사내벤처는 올 연말까지 독립된 별도의 업무공간에서 사업화 과정(인큐베이팅)을 거친 뒤 최종 심사를 통해 분사창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1기 사내벤처는 '시큐리티 AI+' 팀이다. 이 팀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외부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잇따라 사업 잠재력을 뽐내고 있다.

시큐리티 AI+팀은 지난 8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해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20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중기부로부터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며 전담 멘토 경영·자문 서비스,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혜택을 얻게 된다.

인터넷진흥원 사내벤처팀은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AI+챌린지' 플랫폼 구축과 자기공진방식을 이용한 원거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송·수신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별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대회' 예선전에 AI+ 챌린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참여사를 모집한다. 사내벤처팀을 육성할 경우 정부와 운영기업이 각각 1억원씩을 매칭 지원하며, 분사 창업기업은 사업화를 위해 정부가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총 200억원 규모로,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와 분사 기업 200곳 안팎을 선정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TF' 구성

상생지원·고용창출 등 4개 분야

한전KDN이 코로나19 이후 체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태스크포스'(TF·기획팀)를 마련했다.

11일 한전KDN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박성철 사장을 중심으로 차·실장급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경제대응반·고용 창출반·상생지원반·상황대응반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한다.

각 부문별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확산방지 등을 펼칠 방침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투자예산 증액 및 조

기집행 ▲전략산업 기술주 및 포스트 코로나 사업전략 수립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 인턴십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제고·동반성장 대출금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내 방역·예방활동 강화 등이 있다.

TF는 고객사·협력사·지역사회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을 기울인다.

한전KDN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책본부'를 가동해 매일 코로나19 관련 전사 상황을 공유해왔다.

박성철 사장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전KDN만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과 함께 뛰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aT,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8개 박람회 중 3개까지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는 2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온라인 모집한다.

올 하반기 예정된 박람회는 호주 멜버른(9월), 프랑스 파리(10월), 베트남 호치민(11월) 등 총 8회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박람회 개최가 유동적일 수 있다.

참가대상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이며, 최대 3개 박람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통합한국관 1개 부스를

무상 지원받는다. 또 신선농산물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운송통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개별적 참가를 지원하는 개별박람회 참가업체도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 항목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비대면 홍보채널 마련을 위해 박람회 참가업체들에게는 온라인 상품소개 페이지를 신규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스승과 특별한 추억·감사의 마음 나누요"



사학연금이 지난 11일 '스승의 날' 사연모집에 선정된 광주 동신고 교직원들 만나 선물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학연금 제공)

사학연금, 사연 150건 선정 선물·모바일 상품권 전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스승의 날'을 맞아 벌인 사연모집에 총 673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재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스승과 추억

이 담긴 사연을 받아왔다. 접수된 673건 중 150건이 선정돼 해당 스승에게는 소정의 선물, 사연을 보낸 교직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선물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로부터 구매해 마련됐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스승과 제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빅데이터로 발전소 기능 향상 시킨다

한전 전력연구원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 개소

한국전력과 한전KPS 등 전력그룹사는 12일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전력연구원에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를 설치하고, 전력연구원의 연구진과 각 참여 그룹사의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개발팀을 구성해 디지털 발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한전의 주도로 착수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는 2018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대규모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력그룹사가 참여해 디지털 발전소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디지털 발전소'는 발전소의 주요기기인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의 설계, 운전, 예방정비 등 전주기기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술과 접목해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신 기술이다.

한전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그룹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분야 표준플랫폼 구축

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발전소 운영, 진단,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4종의 발전소 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프로그램 12종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말부터는 발전소 현장에 이들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된 디지털 발전 기술로 오는 2026년까지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약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전 측은 내다봤다.

한전은 올해 10월 에너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한번에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마켓'을 구축한다. 한전이 주관하고 한전KPS, 한전KDN 등 에너지 분야 12개 공공기관이 이번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기술력이 있어도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렵고, 마케팅 역량이 부족해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김종갑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에너지 기술마켓은 공공기관에게는 우수기술 확보를,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홍보의 장을 제공하는 상생발전 모델"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